

# 혈액생태학

-환자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으로의 전환

## 만성위염과 얼굴의 종양

| 모리시타 | 임주리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이 글은 2000년 미내사 주최로 열린  
〈제4회 국제신과학심포지엄〉에 초청되어  
장조혈설을 발표한 모리시타 케이이치 박사의  
혈액생태학에 대해 소개한 글입니다  
(편집자 주).



이번에 소개할 분은 홋카이도(北海道) 에비츠시(江別市)에서 정기적으로 클리닉에 다니고 있는 이마노 아츠히토(今野敦仁) 씨(89세)입니다.

이마노 씨는 30년 전부터 심각한 위장장애로 대학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오차노미즈 클리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시타 원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말과 인자한 태도에 감동했다고 말하는 이마노 씨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식이요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약 3년 만에 거의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해지고 나서도 푸드 컨설턴트인 부인과 2인3각으로 30년 이상 자연의식(自然醫食)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또 홋카이도 지부설립에도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에 자연의학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전부터 마음을 쓰고 있던 이마노 씨의 악성종양에 대한 염려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자연에 둘러싸여 매일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 탓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인간과 모든 생명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마노 씨에게서 환자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으로 전환한 비결을 보는 듯 했습니다.

#### 진찰(2006년 12월 22일)

##### 원장의 소견

- 내장기능검사 : 자율신경 작용은 불안정. 신경성으로 위장의 움직임이 변화하기 쉬움.

소화관에서, 위에서 십이지장, 특히 십이지장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경향이 있음.

대장의 일부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 혈액순환 상태는 조금 둔함.

복부장기에서는 역시 간과 신장의 움직임이 다소 저하되어 있음.

- 일반혈액검사 : 혈액의 수치에서는 요소질소, 신장의 수치가 약간 높음.  
중성지방, 혈관을 굳게 만드는 중성지방 성분이 조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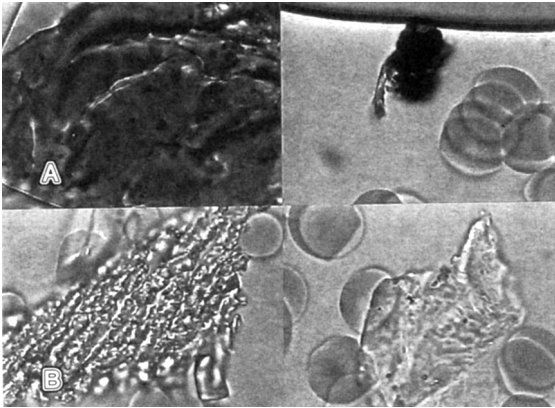


그림1. 이마노 아츠히토  
씨의 혈액상태(血液態)  
(2006년 12월 22일)  
A는 폐에서, B는 장에서  
배출된 독소

**모리시타:** 최근 수개월에 걸쳐 간장의 GOT, GPT 수치도 높았습니다. 산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원이라고 할 정도의 높이가 계속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마노:** 아, 그렇습니까?

**모리시타:** 그리고 혈액상태인데요(그림1), 이번에는 폐 조직이 반응하고 있어 상당히 크고 독특한 독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 나온 것일수록 색깔이 검은데 이것은 1시간 정도 지난 것이어서 색깔이 약간 옅어져 있습니다. 독소의 검은 눈이 녹아 간으로 운반된 후의 상태입니다.

**이마노:** 이것은 폐에서 나온 것 입니까?

**모리시타:** 그렇습니다. 이것은 폐에서 녹아 나온 것입니다. 이 독소는 장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는 훨씬 두껍고 큰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산소에 의해 분자상태로 해체되고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임파선으로 흘러 들어가 간으로 운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



그림2.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마노 씨.

발기능 검사결과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화관이 전부 마이스 상태입니다. 소화관 이외의 장기는 심장이 마이스이고, 혈관계가 조금 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이외에 염려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마노:** 선생님, 이번에 모발검사에서는 암수치가 플러스1, 종양수치가 플러스1이니까, 수치가 내려간 셈이네요. 10월에 검사했을 때는 2와 3이었는데.

**모리시타:** 그렇습니까. 상당히 민감한 측정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이스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암의 출발시점에서 암의 항목은 마이스7 전후의 숫자가 됩니다. 그것이 플러스1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99%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노:** 그렇습니까?

**모리시타:** 현미, 통보리, 울무, 밤, 피, 검은콩, 팥, 대두, 메밀 같은 곡류는 모두 몸에 잘 맞습니다. 현미 이외에 밤, 검은콩, 메밀이 특히 잘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본인의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병을 포함한 삶 자체를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 그 자체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감사하는 것, 진정으로 낮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이마노:** 선생님께서 ‘이번 여름 동안 한 번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 자신도 ‘열심히 해보자, 어떻게든 극복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신기하게도 예전과 달리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시타:** 그것 참 멋진 일이군요. 그런 변화가 생겼다면 낮지 않을 리가 없지요.

**이마노:** 선생님, 이마의 상처 말인데요. 검은 부분이 넓어졌던 것이 최근 들어 작아진 것 같은데 딱지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만져보면 부서져요. 한번 떼어내 보고 싶어졌습니다.

**모리시타:** 잘 익은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웃음). 무리하게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떼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노:** 예전에는 M연고를 발랐었는데, 최근에는 Marimar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M연고를 발라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습니까?

**모리시타:**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게 되어있지요. Marimari는 몇 개월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이마노:** 5개월 정도입니다.

**모리시타:** 적어도 반년 정도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이마노:** M연고를 사용할 때 딱지가 더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연고를 사용해 볼까 생각해 본 것이지요. 그리고 보석에 대해서도 여쭙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투르말린(전기석)과 잘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리시타:** 지금도 투르말린(전기석)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이마노:** 이전에는 라피스(청금석)가 잘 맞는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는데, 저와 궁합이 잘 맞는 보석이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몸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모리시타:** 대체로 계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봄 보석, 여름 보석, 가을 보석, 겨울 보석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은 같은 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노:** 그렇습니까?

**모리시타:** 식물이나 광물 같은 것에 흥미를 갖게 되면 정신 상태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을 상대로 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만 받게 되니까요(웃음).

**이마노:** 최근에는 2달에 한번씩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습시다만,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음 진찰은 몇 월쯤 받으면 좋겠습니까?

**모리시타:** 날씨가 좀 풀리면 오셔도 좋습니다.

**이마노:**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

〈3년이면 낫는다〉는 말에 힘을 얻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마노 씨는 어떤 계기로 언제 클리닉을 찾게 되셨습니까?

**이마노:** 맨 처음에는 위가 안 좋아져서 위도 장도 상태가 나빴습니다. 가까운 정립(町立)병원, 삿쵸로 북대, 삿쵸로 의대,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저명한 전문의원에도 가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모리시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폐암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리시타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클리닉에서 진찰을 받은 것은 1973년으로 그때 나는 50대였습니다.

모리시타 박사님의 첫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이마노:** 모리시타 선생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한 마디 하셨습니다.

“이마노 씨, 당신은 50년간 무리를 한 몸이라 한두 달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3년간 나의 식사지도를 잘 실천하면 틀림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매우 감동적으로 들렸고 이 선생님이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병원에 가보았지만 병원의 의사들은 낫는다는 말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진찰을 하고 ‘이 약을 먹어보세요’ 정도였지요. 그런데 모리시타 선생님은 따뜻한 말과 인자한 미소로 “나을 거니까 3년간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마노:** 힘이 되었다는 것과 모리시타 선생님과와는 웬지 모르지만 심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척 중에는 식사요법으로 낫는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선생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미야채식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자연의식(自然醫食)을 실천하시면서 몸 상태는 어떻게 변화해 갔습니까?

**이마노:** 3개월이 경과했을 때부터 몸이 아주 가벼워 졌습니다. 몸속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한 달에 한번 의대에서

진찰하고 방사선과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담당 선생님께서 ‘식사요법으로 낮고 싶으니 약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해해 주셔서 진찰과 검사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속을 조사해 보면 도중에 몸 상태가 저조하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나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3년 만에 완전히 나아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고통받고 있던 위장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병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마노:** 사실 당시에는 저도 제 병명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궤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진행된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자전거로 직장까지 출퇴근을 했었는데 당시 홋카이도는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돌맹이에 자전거가 곤잘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진동이 위에 전해져서 아팠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든 수술을 권유 받았지만, 수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요법으로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가 끝나는 오후 5시 반에 비행기로 도쿄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진찰을 받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클리닉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하루도 쉬지 않고 다녔지만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 자연의학과 의 긴 인연

**이마노:** 그리고 오늘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마노:** 여기에 딱지가 보이시지요? 2005년 3월의 일입니다만, 이마에 큰 콩만한 사마귀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검정색 사마귀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이마에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츠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세포검사를 받아보려고 해서 검사해본 결과 ‘양성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성인 것이 아니라 악성종양이라는 뜻인 거지요.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습니다만 심사숙고 끝에 모리시타 선생님의 클리닉에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한때 병원에서 준 약을 발랐더니 상처가 짓무르면서 넓어졌는데, 그것이 나으면서 조금씩 떨어져나갔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모발기능검사 결과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모리시타 선생님은 식사 이외에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먹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마노:**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족과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텃밭의 식물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을 포함해 여러분 덕분에 살아있다는 것.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30년 이상이나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계신데 자연 의학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이마노:** 우선 현대의학에서는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에 비하면 자연의학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에 사는 지인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모리시타 선생님을 만나서 대장암이나 폐암을 극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것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주변 분들과 함께 자연의학을 계속해 오신 모습이 잘 전해져 오는 일화군요. 그런데 부인께서도 자연의식(自然醫食)을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마노:** 아내는 모리시타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연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푸드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진료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모리시타 선생님이 몇 년에 한 번 있는 왕진을 홋카이도로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 자연 속에서 감사로 충만한 삶

그러면 식이요법 외에 실천하고 있는 건강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마노:**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걸으려고 유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 근처에 홋카이도 낙농대학 캠퍼스를 한

바퀴 돌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캠퍼스 안에 원생림이 있어, 그 안을 걸어보면 공기의 맛이 아주 좋습니다.

걸으면서 대자연의 기운을 빨아들이시는군요(웃음).

**이마노:** 그리고 텃밭을 가꾸어 자연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즐거움도, 또 하나의 건강법이 아닐까 합니다. 시금치, 토마토, 완두, 대두처럼 여름에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기 때문에 가게에서 사먹는 것과는 맛이 전혀 다릅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이 자라는 모습, 뿌리가 나오고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와 같은 자연과 태양의 은혜를 느낍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기분도 그럴 때 가슴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오늘 참 고맙습니다. (끝) 

- 이 글은 '自然醫學 2007.4 No. 490'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모리시타 게이치** | 국제자연의학회장. 트빌리시(그루지아) 국립의과대학 명예교수, 심양(중국) 약학대학 객원교수. 중국보건식품협회 향노화학회 명예이사.

역자 | **임주리** | (주)도쿄가스엔지니어링에서 통역.(사)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KPC. (주)아시아코치센터 전문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리더를 세우는 맘코치>란 제목으로 유치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부모코칭 강의를 하고 있다.